

◇학령기 및 그 이후에서 대동맥교약증의 수술

변정욱, 윤찬식, 이선훈, 구본일, 이홍섭, 오상준

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흉부외과

배경 및 목적 : 학령기 및 그 이후에서 대동맥교약증의 수술은 영유아기에서의 수술보다 잘터지기 쉬운 부혈행로와 봉합부의 과도한 긴장으로 절제 및 단단문합술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대동맥교약증의 다양한 해부학적 형태때문에 다양한 술식이 필요할수 있다. 이에 그 해부학적 형태에 따른 이상적인 수술방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

방법 : 1989년 부터 1998년까지 8세이상에서 대동맥 교약증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받은 11례를 대상으로 하였다. 남자가 7명, 여자가 4명였고, 연령은 8세에서 25세까지로 평균 13세였으며, 수술방법은 절제 및 단단문합이 4례, 절제 및 대동맥 성형술 1례, 절제 및 인조혈관 이식술 1례, 대동맥간 우회술 3례, patch onlay graft 2례였다. 추적기간은 평균 66.3개월 [범위: 1-109개월]로 추적기간중 시행한 심초음파검사를 분석하였고 하지의 간헐적 파행의 유무, 측지, 상하지의 혈압차등도 아울러 분석하였다.

결과 : 추적기간중 사망 및 재협착은 없었으며, 술후 일시적인 성애가 1례, 일시적인 혈색소노증이 1례였다.

결론 : 다양한 해부학적 형태에 따른 위의 수술방법은 학령기 및 그 이후에서 대동맥교약증의 수술에 모두 유용한 것으로 사료된다.

책임저자: 변정욱 (인제대학교 서울 백병원) 발표자: 변정욱 (인제대학교 서울 백병원)